

“자영업 형편 개선되는 원년 기대”

文 대통령,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되며 “이른바 할인 깡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소풍,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 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 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다

니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도입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발표한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열거한 뒤,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 명이다.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자 2682만 명 중 25%로 4분의 1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인 셈이고, 그러나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편이었다”며 “그러나 자

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며 “중증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지속 가능한 수익기반 구축

농협금융, 작년 첫 1조원대 순익... 출범 후 역대 최대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14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금융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2189억원으로 1년 전 수준(8508억원)보다 3591억원(4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농협법상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 3858억원을 제외한 순이익은 1조4899억원에 달했다.

총영업이익에서 이자이익은 7조9104억원으로 전년(7조1949억원)보다 7155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자산 등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에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도 1조2226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6995억원 줄어 1년 전(5457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1538억원 확대됐다. 수수료 이익이 1조789억원으로 전년(1조321억원)보다 468억원 확대됐으나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558억원으로 전년(2조1495억원)보다 2

조937억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 부실채권에 대한 총당금 규모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누적 신용손실총당금은 7355억원으로 전년대비 2084억원(22.1%) 감소했다. 다만 판매관리비는 4조1504억원으로 전년대비 1615억원 늘었다.

비은행 부문에서는 투자증권과 캐피탈이 약진했다. NH투자증권의 당기순이익은 3609억원으로 전년대비 108억원 증가했고, 캐피탈도 470억원으로 117억원 늘었다. 그러나 농협생명(114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순익(854억원)보다 1995억원 감소한 것이다. 손해보합의 당기순이익도 전년대비 245억원 줄어든 20억원에 그쳤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올해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수출 등의 동반 부진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 압력이 심화할 것”이라며 “리스크 분석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수익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농협, 사랑의 빵으로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14일 대한적십자사전북지사 빵굽터에서 김장근 본부장, 박병철 NH전북농협 노조 위원장 등 임직원 15명이 참여해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농협은행 직원들은 반죽부터 시작해 빵만들기, 굽기,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 희망과 사랑을 담아 전주지역이동센터에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농협 관계자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며,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정성을 다해 만든 빵이 따뜻한 온기, 희망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지역 소외계층과 공감하고 ‘나눔 문화, 나눔 봉사’ 또한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누기, 온기 나눔 헌혈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상반기부터 6조 규모 해외 수주 금융 공급 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원 체제 본격 가동... 필요시 정상도 나설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상반기부터 해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6조원 규모의 금융공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부가 일체가 돼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등 해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외 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대 건설사와 중소기업, 유관 공공기관과 관련 부처로부터 5차례 의견을 수렴했다. 대책은 수주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수주 실적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홍 부총리는 “신북방·신남방 등 전략적 해외 사업 수주가 조속히 결실

을 맺을 수 있도록 전(全) 내각이 수주 외교의 최전방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면 총리 및 정상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이 적시에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 인프라 개발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대형 ‘투자개발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해외 수주는 일자리와 우리 물품에 대한 수요를 해외에서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대단히 큰 수출 사업”이라고 짚으며 “이번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면 올해 중 총사업비 780억달러 상당의 47개 사업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렉시트(Brexit) 상황에 따른 대비책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상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그동안 업계, 전문

가 등과의 협의 등 의견 수렴 프로세스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선 “가입을 전제하지 않고 주요 회원국들과 비공식 예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관련 영향 조사 보고서 제출 시한이 오는 17일로 임박한 데 대해선 “모든 가능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에 따라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신속하게 신속하게 상황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윤종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중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뉴시스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시한 60일 연장 검토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회담을 시작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 부과 시한을 60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중 양국이 무역협정 합의에 근접하게 되면 3월1일까지인 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가 더 많은 시간 동안 협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한을 60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12일 “중국이 미국에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다.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대변인은 그러나 논평 요구를 거부했다. /뉴시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업 활력화 주도

전북농협-전북팜스테이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전북팜스테이협의회(회장 서현익)는 14일 지역본부에서 도내 16개 팜스테이마을 대표, 사무장, 농협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팜스테이 협의회 2019년 정기총회를 했다고 밝혔다.

팜스테이 대표들은 농촌을 찾는 도시민에게 최고의 농촌 체험·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유지·조성, 마을의 가치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발전시켜 안

전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팜스테이는 1999년 32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8년말 전국 301개(전북 16개)마을이 참여하고 국내 농촌체험·관광마을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소

중함과 다양한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지역 고용창출 등 농촌 활력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